

가정: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 회복되는 곳

■ 본문

엡 5:31-6:4

■ 시작 찬송가

31, 32, 34장
(통 46, 48, 45장)

■ 헌금 찬송가

555, 558, 559장
(통 555, 558, 305장)

▶ 가정

1. 가정 신앙의 요소

- 1) 경건한 조상들
(창 18:19)
- 2) 경건한 어머니
(삼상 1:22)
- 3) 부모의 기도
(삼하 12:16)

2. 성도의 가족

- 1) 축복을 받는다.
(시 128:1-3)
- 2) 말씀으로 교육한다.
(신 4:9-10)
- 3) 하나님께 경배한다.
(렘 2:4)
- 4)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막 3:32-35)

가정의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사회를 보면 건강하지 못하고 깨어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져있고 금이 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정 뿐 만 아니라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도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가정의 상처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혹시라도 자신을 업신여겨 낮게 볼까봐 감추는데 급급합니다. 가정의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아픔과 상처를 고백할 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 30: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면 가정은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 가정, 예수님이 중심이 된 관계는 다 소망함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렘 17:7-8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으로 세울 때 주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며 가정을 돌보게 됩니다. 가정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 삶에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막 12: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샘물신앙: 예수님 중심으로 붙잡는 신앙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는 말이 상처에 파스나 붙이는 정도의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파스와 같은 역할을 하시며,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거기로부터 샘물이 솟아나 회복됩니다. 파스 신앙을 버리고 샘물신앙을 되찾아야 합니다. 붙이는 신앙이 아니라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제는 끝났다고 포기하는 것들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 14: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모든 관계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까지 복잡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피차’라는 말은 모든 관계를 말하고 복종은 섬김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피차 모든 관계에 겸손하고, 삶 속의 많은 관계에서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맘에 모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약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뜻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따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종은 존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경받도록 주님께서 가정에 세워 주셨습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높은 곳에 앉아있지 않아도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아도, 다른 가정과 비교하여 남편의 지위가 낮을 지라도 존경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아내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을 존경하는 은혜를 통해 가정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엡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종보다 사랑은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사랑의 정체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바칠 때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편한 정도로만, 좋은 정도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높여드리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돈 있는 부모님에게만 공경하고 높여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다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드신 가정의 문화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전제 역시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뜻은 모든 관계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에도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깨어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예수님 이 계시면 문제를 넘어서 수 있으며 부족함을 이해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엡 6:1-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된 가정: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가정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는 가정은 약함을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가정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 받고 존중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위로 받고 축복받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둔 가정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또한 어려움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며,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수 24:15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부부 관계의 임무

1. 남편의 임무

- 1) 사랑할 임무 (신 24:5)
- 2) 슬플 때 위로할 의무 (삼상 1:8)
- 3) 아내를 섬길 의무 (고전 11:3)

2. 아내의 임무

- 1) 남편을 존경해야 할 임무 (에 1:20)
- 2) 남편을 섬길 임무 (엡 5:22)
- 3) 사랑할 임무 (딤후 2:4)
- 4) 담대하게 증거하라 (행 18:9-10)

▶ 부모의 의무

1. 부모의 특별 의무

- 1) 가르치는 일 (신 6:7)
- 2) 훈련하는 일 (잠 22:6)
- 3) 양육하는 일 (엡 6:4)
- 4) 사랑하는 일 (딤후 2:44)

오늘의 한마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는 복된 가정 됩시다!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